



이수진 목사 교육시간



이희선 목사 교육시간



만민학생 졸업식



만민학생 찬양제



만민학생 체육대회



캠프파이어

“우리 학생부가 더~ 예뻐졌어요”

하나님과 주님, 목자 사랑을 듬뿍 받으며 우리 교회 학생주일학교 학생들이 영적 장수로 자라고 있다. 장년 성도 못지않은 영적 사모함과 주의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 무한한 가능성으로 눈부신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만민뉴스 학생 기자단의 취재로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만민학생 하계수련회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이번 수련회에는 특별히 상금을 쌓기 위해 봉사부를 지원했습니다. 봉사부원들이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도 연합하고 순종과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어동생과 함께 3년째 참석했는데 놀랍게 변화된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급속한 영의 불결을 느꼈습니다. 내년에도 기대가 됩니다”

권시은 형제(미국 뉴저지 만민교회)

“예전에는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끝 송이 같이 달콤합니다. 선(善)을 사모해 선한 것만 보고 들으려 했더니 생활 속에서 행복이 넘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했더니 신기하게도 짜증도 줄고, 싫어했던 친구들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좋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예은 자매(고)

“마니 은사집회를 통해 주님 사랑을 마음 중심에서 깨달으면서 TV 시청,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가는 일 등을 끊었습니다. 그 결과,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저의 비전은 광고 디자이너가 되어 전 세계에 우리 교회를 알리는 일입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부모님과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신희성 형제(고2)

하나님께서 쇄골 골절을 치료해 주신 뒤...

문의진 형제 (중2 선교회)

문의진 형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쇄골(뺨뼈) 골절을 치료받은 후 참석한 수련회였기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골든벨과 체육대회에 출전해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 성령충만 기도회와 교육시간을 통해 변화받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의진 형제가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간증을 소개합니다. 지난 6월 6일, 체육대회 축구 예선 때 상대 팀 선수의 태클에 넘어져 쇄골이 부러졌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수술해야 한다고 했지만 일단 보호대를 착용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다니엘철야기도회에 참석해 화제의 눈물을 흘리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10일, 특별 은사집회 때에는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렸습니다.

12일, 주일 저녁예배 후 당회장님이 인도하시는 마니 은사집회를 통해 항상 학생부들을 생각해 주시는 목자의 사랑을 한층 더 느꼈습니다. ‘왜 예전에는 이런 목자의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

을 뜨겁게 하지 못했을까?’ 또 다시 회개했습니다. 매일 목자의 정성이 담긴 음성전화 사서함 환자기도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되더니 빠른 속도로 어긋난 뼈가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의진 형제는 이 일을 계기로 쇄골 골절을 치료해 주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무장을 하면서 목자의 기쁨이 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취재: 고1 선교회, 문화예 자매)

“만민학생 골든벨”에서 3등 했어요

박지희 자매 (고2 선교회)

이번 하계수련회 때 제회 만민학생 골든벨에서 3등의 영예를 차지한 박지희 자매. 방황했던 지난날을 돌이켜 변화되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지희 자매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성교제를 하고 친구들과 노느라 주일을 번번이 어겼습니다. 얼마 따라 억지로 교회에 와서 때로는 헌금을 임의로 사용했고 예배시간에 졸음에 빠질 때가 많았지요.

마음 한편에서는 ‘지금 주님이 오시면 나는 어떡하니?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작년 하계수련회 교육시간에 감사 이희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깨우침이 왔습니다. 이어진 기도와 찬양시간에 통회 자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기도를 쉬고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느 주일 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울컥 쏟아졌습니다. 그날부터 설교 말씀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눈물 지으시는 당회장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변화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녁예배 후 열린 마니 은사집회에 참석하여 당회장님께서 학생들을 위해 흘리시는 눈물을 볼 때마다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서운 하나님께로 알았는데 당회장님의 사랑을 느끼니 하나님과 주님 사랑이 마음 속 깊이 와 닿았습니다. 지희 자매님은 고백합니다.

“앞으로 영적인 사모함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꼭 아름다운 천국 세례수행에 가길 소망합니다”

(취재: 고3 선교회, 성지혜 자매)

취재: 만민학생 기자단 김시은, 문화예, 박해림, 성지혜, 이지영, 이현빈, 채하영, 홍하은(가나다순)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부산신민성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림 1동 275-77 ☎010-8223-4181-4
- 서부신민성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로 2동 109번지 북동 B/D 7층 ☎051-826-1537, 010-5521-2073
-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826-4717, 010-4575-1834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10-4564-3000, 010-712-30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825-1005, 833-8283, 010-5434-3827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82-5(3층) ☎042-257-2073, 010-7777-7027
-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서원 강 건너편 ☎062-610-2465, 010-8888-0127
- 광주광역시 서구 자갈치 옛 안동초등학교 정면 ☎062-372-1002, 010-2290-7778
- 동광주광역시 북구 각하동 167-4 ☎062-826-7001, 011-637-6443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633-1537
- 남울산신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81-2233, 010-2505-1537
- 안산신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동 천사역 102-1 ☎031-662-9981, 010-3278-7712
- 연천신교회 010-2634-5478
- 천안신교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서문동 102-22 ☎041-881-7000, 010-3030-7025
- 공주신교회 충청남도 공주시 신안동 200-22 ☎041-667-4721, 010-2781-2073
- 서산신교회 충청남도 서산시 장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신교회 충청남도 아산시 관북동 535-16 ☎041-646-1537, 010-2672-0244
- 서창신교회 충청남도 대천시 대천동 382-5(3층) ☎042-537-2073, 010-7777-7027
- 창원신교회 경상남도 창원시 동성동 909-4 서원 강 건너편 ☎055-251-2465, 010-8888-0127
- 세창신교회 충청남도 서산시 대천동 382-5(3층) ☎042-537-2073, 010-7777-7027
- 충주신교회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707번지 두산빌딩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미산신성교회 강원정선시 마산리 회관 2층 606-1 ☎033-247-8891-2, 010-5527-2073
- 영양신교회 강원영양시 내포동 1524-14 ☎033-2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상남도 진주시 안동동 301-5 ☎055-862-5815, 010-9386-3827
- 김해신교회 경남 김해시 부림동 626-18 ☎010-2634-5478
- 창원신교회 경남 창원시 상산구 내동 456-12 5층 ☎055-257-7077, 010-2447-7077
- 창원신교회 경남 창원시 안동동 301-5 ☎055-862-5815, 010-9386-3827
- 거창신교회 경남 거창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862-5815, 010-9386-3827
- 경주신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25-6 ☎0547-68-5777, 010-3147-5777
- 포항신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9433-1327
- 남포항신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천동 909-10호 3층 ☎054-281-9367, 010-9433-1327
- 구미신교회 경북 구미시 상동 1009-1 ☎053-211-1855, 010-2291-7173
- 여수신성교회 전남 여수시 동덕동 500-5 ☎061-682-8311, 010-7317-2073

- 목포민성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신교회 전남 무안군 해례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신교회 전남 순천시 조계동 187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영암신교회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명리 47-11 ☎061-0473-2707, 011-803-7766
- 전주신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271 929-1 ☎063-225-9991, 010-4202-1537
- 익산신교회 전북 익산시 안동동 250-3 ☎063-853-0675, 011-637-0283
- 춘천신교회 강원도 춘천시 호서동 671-11 ☎033-251-1144, 010-7900-2069
- 원주신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9-1535, 010-9108-2073
- 속초신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03-44 ☎033-637-0271, 010-9433-1327
- 강릉신교회 강원도 강릉시 모래봉 102-1 3층 ☎033-641-3720, 010-6334-7750
- 제주시신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2775-1 ☎64-749-0075, 010-2489-2251
- 영동신성교회 영동지방청 영동읍 900-5 ☎02-556-8517-6,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58-26 ☎02-995-98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미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5-41 ☎02-859-9857, 011-287-7369
- 전주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2-859-9858, 010-7720-7770
- 분양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6355-183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현동 453-3 ☎031-925-2419, 010-2781-01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2-629-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동성동 185 349-5 ☎02-949-9767, 010-3320-3172
- 수원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00-3 ☎02-268-3833, 010-4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29번지 ☎031-012-8480, 010-27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835-93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

01 교회소식

2011년 만민학생 하계수련회

뜨거운 영적 사모함과 주의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 무한한 가능성으로 눈부신 비상을 준비하는 학생주일학교 학생들이 지난 7월 말 하계수련회를 가졌다.

02 생명의 말씀

일곱 교회

에베소, 세마나, 버가모, 두아나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통해 오늘날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외침을 듣는다.

03 기획특집

사데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1)

사데 교회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께로부터 네가 내 행위를 아느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을 받았다.

04 특집

“우리 학생부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성령님의 진한 사랑을 느끼며 영적 장수로 성장하고 있는 만민학생 하계수련회 이모저모.



“우리 학생부가 영적 장수로 자라고 있어요”

2011 만민학생 하계수련회, 하나님과 주님, 목자와 신뢰관계 형성



7월 25일 저녁, 첫날 강사 강태환 목사(학생주일학교 교장)는 ‘공부 잘하는 비결- 4가지 키워드’에 대해 설명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이며 하나님께 영광드리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당부한 뒤 학생들과 함께 흥겹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님, 성령님 감사해요, 사랑해요”라고 외치고 있다. (왼쪽 하단 사진: 잠자리를 손에 얹어려는 모습과 핸드폰에 찍힌 나팔 부는 찬사 형상)

우리 교회 학생주일학교에서는 영성과 실력을 겸비하여 세상을 리드하는 영적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회장 이재복 목사는 학생들의 영혼이 잘되어 하나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비전을 심어 주며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해 왔다.

이에 만민의 학생들은 자극적인 세상 문화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영의 흐름을 타고 있다. 지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총복 고산군 보람원에서 열린 2011년 만민학생 하계수련회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민학생 활동 첫째 날** 정권하 장로(총부장의 인도로 개회예배를 마친 후, 제회 만민학생 골든벨이 학생들의 힘찬 환호성과 함께 막을 올렸다. 김은혜(고3), 이지영(고2) 자매의 사회로 우리 교회와 국내 및 해외 지교

회에서 예선을 거친 약 150여 명의 학생이 출전하여 각축을 벌였다. 패자부활전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스피드 퀴즈와 문자투표로 진행됐다. 최후의 1인으로 남은 김동민 형제(동광주 만민교회, 고3)는 “대회를 위해 예상문제와 당회장 이재복 목사님의 ‘공부 잘하는 비결’, ‘믿음의 분량’ 말씀을 공부하면서 영적 지식을 무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만민학생 한겨레 둘째 날인 26일에는 빈지나(고3) 자매, 정현우(고3) 형제의 사회로 제18회 만민학생 찬양제가 열렸다. 오픈닝 공연 뒤 열린 응원 속에 13개의 본선 진출팀의 무대가 이어졌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예선을 거친 실력자들의 경합 속에 찬양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하게 의미할 수 있었다. 대상을 수상한 김정은 자매(고3)는 “상을 바라보기보다는 겸손하게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다”고 소감을 밝혔다. 금상은 이은유(고3), 은상은 김단비(고3), 동상은 ‘We will go’팀(캐러리 만민교회), 인기상은 김새롬(고3) 자매가 수상했다. 최후의 1인으로 남은 김동민 형제(동광주 만민교회, 고3)는 “대회를 위해 예상문제와 당회장 이재복 목사님의 ‘공부 잘하는 비결’, ‘믿음의 분량’ 말씀을 공부하면서 영적 지식을 무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 차례 교육과 캠프파이어 첫째 날 김태환 목사(학생주일학교 교장)는 ‘공부 잘하는 비결-4가지 키워드(빌 4:13)라는 주제로 ‘IQ, IQ, IQ’를 주제로 “IQ, IQ, IQ”에 대해 말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리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둘째 날 이수진 목사(교역자 화장은 ‘육의 사람 영의 사람’(요 3:6)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마니 은사집회를 통해 많이 변화된 것 같다’며 육의 무익함에 대해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또한 셋째 날 이희선 목사(전국 남아선교회 총지도교사)는 신령(요 15:1-8)라는 주제로 “하나님과 주님, 목자님과 하나 되어 가나안 사대에 귀히 쓰임받는 영적 장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캠프파이어를 통해 회개 시간과 찬양에 찬양을 인도했다.

이번 수련회에서도 어김없이 많은 자리가 출현하여 학생들에게 추억을 선사했다. 또한 동물, 나팔 부는 찬사, 꽃잎 등 다양한 모양의 오색 빛이 휴대폰에 촬영되어 찬양을 더했다.(4면에 이어) (취재: 만민학생 기자단)

